

# 수박 재배, 서서 할수 있다

### 농진청, 수직재배장치 개발 노동 강도 절반·생산량 2배

하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일해야 하는 수박 재배를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박 수직재배장치'가 개발됐다. 특히 이 장치를 이용하면 평바다에서 키우는 기존 포복재배보다 노동 강도를 50% 이상 낮출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3배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노동 강도는 절반으로 줄이고 수확량은 2배로 늘리는 '수박 수직재배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 및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설치와 철거가 쉽고 고정식과 이동식 시설하우스(온실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간지 접이식 수박 받침대를 이용한 형태이다. 이 장치는 시설하우스 지붕 파이프로 그물망을 설치해 바다로 내린 후 과실이 달리는 줄기를 플라스틱 집게로 그물망에 수직으로 고정(유인)한다. 그다음 수박이 주먹만 하게 자라던 수박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려주면 된다.

수박받침대는 높이 70~100cm 길이 1.5~2m의 접이식 형태의 다리와 수박을 올려놓을 수 있는 원형 모양의 판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형과(2~5kg)는 물은 대형과(5kg 이상) 재배도 가능하다.

이 수박 수직재배장치를 이용하면 기존 포복재배에 비해 노동 강도 절반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수확 등 힘든 작업을 하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함으로써 노동 강도를 50% 이상 줄일 수 있고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박 수직재배장치'를 설치해 수박을 재배한 비닐하우스 모습.

낮출 수 있다. 또 심는 거(포복 재배 40cm→수직 재배 20cm)는 줄이고 이랑 수(2이랑→8이랑)는 늘리는 밀식 재배가 가능해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2~3배 늘릴 수 있다. 특히 시설비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결과, 농가 소득은 10아르(a) 기준으로 수직재배(약 607만원)가 포복재배(약 551만원)보다 약 28%(14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수직재배장치는 기존 개발된 수직재배장치와 수박받침대의 형태와 적용 가능한 시설하우스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개발된 수직재배장치는 수박받침대를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고정형이며, 고정식 시설하우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수직재배장치는 수박받침대의 설치와 철거가 쉬운 이동형으로, 고정식과 이동식 시설하우스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시설비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2019년 기준 전국 수박 재배면적은 1

만 1,972ha로, 78%(9,325ha)는 시설에서, 22%(2,648ha)는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시설재배는 고정식 시설하우스에서 78%(7,273ha), 이동식 시설하우스는 22%(2,052ha)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은 전체 수박 시설재배 면적(1,981ha)의 약 99%(1,961ha)가량이 이동식 시설하우스다.

이번에 개발된 수박 수직재배장치를 시범 사용해본 한 농가는 "4~5kg 크기의 중과형 품종을 재배했는데, 서서 일할 수 있어 허리에 부담이 없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랑 수 증가로 수박 생산량도 늘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김승유 농업연구관은 "수박 수직재배장치는 노동 강도·생산량·농가소득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포복재배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개발 장치의 특허출원, 농가 시범사업을 통해 수박 수직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핵심 인프라 모두 누리는 명품주거단지

### 대우건설, '익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11일 건분주택 개관

대우건설이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익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건분주택을 1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건분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와 연동된 카카오톡채널을 통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익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A11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11개동, 전용 59·78·84㎡ 총 67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 별로 ▲전용 59㎡A 138세대 ▲전용 59㎡B 61세대 ▲전용 78㎡ 54세대 ▲전용 84㎡A 269세대 ▲전용 84㎡B 152세대로 구성된다.

'익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조성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 왕궁면 관안리·동흥리·왕궁리·홍암리 일원 약 282만㎡ 규모에 130여개 식품기업과 10개 연구기관 등이 계획된 식품 전문산업단지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평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위치한 직주근접성은 물론 대 규모 고용 창출과 인프라 확충 등 산업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익산 최초 '푸르지오' 브랜드 프리미엄에 더해 공공택지지구 분양 이점을 살린 합리적인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인근에 교보·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쾌적한 자연과 교육여건 등 다양한 장점도 두루 갖춘 만큼 입주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동점 '푸르지오'... 핵심 인프라 모두 누리는 명품주거단지 기대

'익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체험점포 '꿈이름' 전주점에서 전북 13기 교육생과 함께 '꿈: 이루다' 이벤트를 8월 한 달간(예산소도시 조기 마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별 기초교육부터 전문교육, 점포체험교육, 창업전문가 1:1 멘토링, 사업화 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까지 원스톱(One-Step)으로 진행되는 창업 패키지 사업이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체험공간인 '꿈이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에서는 '꿈이름' 제품을 구매할 고객들에게 텀블러, 음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25만원 이상 영수증 합산 시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꿈이름' 전주점은 전북 13기 교육생들의 특색있고 개성넘치는 아이 텀블러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위생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이중 '미미구매'는 지역로컬농장과 직거래로 구매한 원재료로 만든 구움과자(과일청)를 판매하고 이를 베이킹 밀키트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가정, 교육기관 등에 배달까지 제공한다.

'달라더그'는 구매자의 기쁨을 담기 위해 하나하나 블렌딩한 여러가지의 향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추



익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투시도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위치 편리한 대중교통 '눈길' 차별화된 교육환경도 '주목'

### 15~16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17~18일 1~2순위 청약접수

규모 산업단지가 모두 인근에 있어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주택 수요가 전망된다.

높은 주거편의성도 눈길을 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와 722번 지방도가 인접해 타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하고, 주변에 8개 버스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이어 단지 주변에 농협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도리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춰 깨끗한 자연환경을 즐기기도 좋다.

차별화된 교육환경도 주목된다. '익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도보 3분 거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안심교육권 입지를 충족했다. 또한 교사 1인 당 학생수가 적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에 안심할 수 있다.

# RE100 제조기업 우선협상자 선정

### 주성컨소시엄, 대규모 투자 제안으로 선정돼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미래 지향적 탄소중립산업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형 RE100 실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제안한 '주성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관련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 투자계획, 재무계획, RE100 이행계획, 새만금개발 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주성컨소시엄'은 반도체 등의 첨단 제조장비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주)을 주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

전사인 (주)한양 연간 1GW 태양광모듈 생산능력과 태양단지 생산경험을 보유한 국내 모듈제조 1세대 기업인 (주)신성이너지 3개사로 구성됐다.

'주성컨소시엄'은 3개 기업이 가진 각각의 강점을 극대화해 안정적인 RE100 연계와 함께 원활한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주성컨소시엄의 투자는 새만금의 스마트그린 정책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면서 "올해 안에 사업협약체결과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NH국민은행 간편회원가입 도입 기념

### 농협상호금융, 순금이벤트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NH국민은행 간편회원가입 도입 기념 순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NH국민은행에 신규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농협은 총 1만5천여 명의 고객을 추첨해 ▲골드바 100g(1명) ▲75인치 QLED TV(2명) ▲

대용량 의류관리기(3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NH국민은행은 전국 750만 고객이 이용하는 농협의 대표 디지털 플랫폼으로, 금융 거래와 농축산물 구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 일에는 농협 계좌가 없는 고객도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회원가입'을 도입하며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

/김윤상 기자

# 바이오진흥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기술 지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3일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의 기술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효능·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능성 소재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참여기관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 직접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기능성 스크리닝 및 세포 효능평가 지원 ▲지표성분 분석법 정립 및 정량분석 지원 ▲동물수준 비임상 효능평가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지원 ▲GMP 생산지원 ▲간이독성 평가 지원 ▲품질분석 지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기능성소재의 상용화를 희망하는 도내 식품, 화장품 기업 등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김윤상 기자



전은, 취업지원금 증정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령고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최대 2만원 증정 이벤트'를 시행한다.

취업준비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이벤트는 2021년 이후 전북은행 계좌로 실업급여 입금내역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 지급한다.

전북은행 계좌로 실업급여 수령 시 1회 3,000원, 2회 5,000원, 3회 이상 7,000원을 증정하며, 최대 1만5,000원 취업지원금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해당 고객 중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1회 이상 사용 시 추가로 취업지원금 5,000원을 증정해,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령 고객은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에서 부채관리, 고금리대환대출상담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신협 3차 캐릭터 광고 110만뷰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신협의 세 번째 어부바 캐릭터 광고가 유튜브 업로드 7일 만에 110만 뷰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협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어부바 3차 캐릭터 광고는 업로드 7일 만에 114만 뷰를 돌파했다. 이번 광고에서 신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대국민을 위로하는 힐링 메시지로 전달에 주력했다. /김윤상 기자



LX-KEPCO, 전문성 제고

### 감사 업무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삼일감사 성기청·LX공사)와 한국전력공사(삼일감사 최영호·KEPCO)가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LX공사 성기청 삼일감사와 KEPCO 최영호 삼일감사는 8일 전날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혁신시대 발굴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력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인력풀 공동 구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청렴문화개선·사회기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LX공사 성기청 삼일감사는 "청렴성·공정성 제고는 조직문화가 혁신의 패아 이뤄진다"며 "양 기관이 협업체계의 발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창의적 업무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끄는 미중용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EPCO 최영호 삼일감사도 "양 기관이 국민 접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만큼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토대로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혁신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